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CPI,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연준위원 발언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10일(목) 미국 증시는 장 초반 CPI,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매크로 지표를 소화하며 하락 출발하였으나 이후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 중심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약보합 마감 (다우 -0.14%, S&P500 -0.21%, 나스닥 -0.05%)

미 노동부에서 발표한 9월 CPI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하며 전월치(2.5%)를 하회하였지만 컨센서스(2.3%)는 상회,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하며 전월치 및 컨센서스(3.2%)를 모두 상회.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금번 헤드라인 CPI 상승의 대부분은 식료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상승,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고 발표.

9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전월치(0.3%)에 비해 소폭 둔화세. 한편, 전년대비로는 1.5% 상승 하며 전월치(1.4%)를 상회하는 수치. 9월 주간 평균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전월치(0.6%)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전년 대비로는 0.9% 상승하며 전월치(1.0%) 대비 상승률 소폭 둔화.

한편,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9월 29일~10월 5일)는 25.8만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3.3만 건 상승, 컨센서스 인 23.1만 건도 상회하는 수치.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9월 22일~28일)은 주간 186.1만 건을 기록하며 직전 주 대비 4.2만 건 상승.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직후 미국채 10년물 금리, 달러화, 미 증시는 하락 전환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부각되는 모습을 보임.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알파벳(+0.14%), 아마존(+0.80%), 엔비디아(+1.63%)는 상승한 반면, 애플(-0.22%), 테슬라(-0.95%), 메타(-1.13%), 마이크로소프트(-0.39%)는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 엔비디아(+1.63%)는 블랙웰 12개월치 완판 등 연이은 AI향 강력한 수요를 확인하며 주가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 AMD(-4.0%)는 리사수 CEO가 블랙웰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AI 칩을 공개 했음에도 블랙웰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장 평가로 인해 주가는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저녁(9시 30분)에 동시에 발표된 미국의 C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연준의 통화정책의 경로 측면에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로 발표됨. 먼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2.4 YoY%를 기록하며 전월(+2.5 YoY%) 대비 둔화했지만 컨센서스(+2.3 YoY%)를 상회. 근원 CPI는 +3.3%(YoY)를 기록하며 전월치 및 컨센서스(+3.2%)를 모두 상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음에도 시장 반응과 연준위원 발언을 살펴보면 금번 CPI 결과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내러티브를 일으킬 정도의 쇼크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전월비 기준, 에너지(-1.9%) 부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거비(+0.2%), 식료품(+0.4%) 가격 상승이 전체 헤드라인 CPI(+0.2%) 상승을 견인. 그 외에 전월 대비 중고차(+0.3%), 운송서비스(+1.4%), 의료서비스(+0.7%), 의류(+1.1%) 등이 상승. 이 중 CPI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가격이 전월 대비 기준 +0.5% → +0.2%로 둔화된 점은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지지하는 요인.. 다만, 금번 CPI에는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10월 CPI 지표 발표 전까지 WTI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방향성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는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

오히려, 이 날 장 초반 시장은 CPI 지표보다 주간단위로 집계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등한 점을 더 우려 요인으로 반영하며,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에 민감도가 높은 모습을 보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58K를 기록하며 컨센서스(231K)와 전월치(225K)를 모두 상회, 1년 2개월여 만에 최대폭 증가. 다만, 이는 하리케인, 보잉 파업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했으며 고용 침체 우려를 촉발시킬만한 재료는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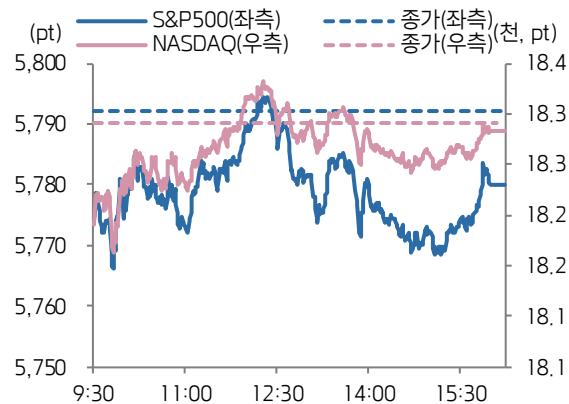
이처럼, 당분간 작은 매크로 지표에도 민감도가 높은 증시 환경은 이어지겠지만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고려 해본다면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완화(11월 25bp 인하)라는 현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 (현재 페드워치상 11월 25bp 인하 확률 85%, 동결 확률 15%)

10일(목) 국내 증시는 옵션만기일을 맞아 전반적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 지속, 개별 업종별 이슈로 인해 종목장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로 마감 (코스피 +0.19%, 코스닥 -0.35%)

금일 국내 증시는 오전 11시 (한국 시간)에 예정된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를 소화함에 따라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거래대금 부진 속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며 수시로 업종별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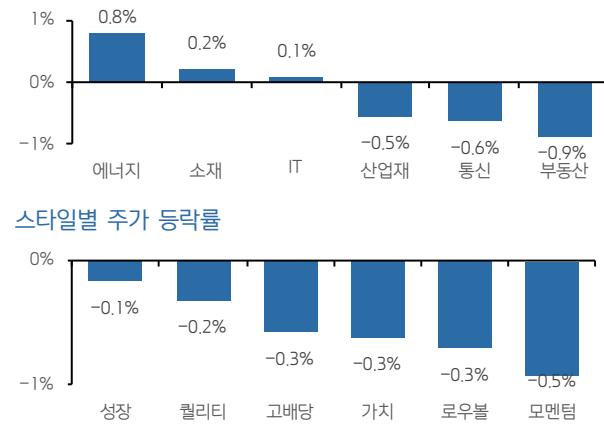
한편,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금일 오전에 예정된 가운데 G2의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발표된 시점에서 한국은행도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할지에 주목.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글로벌 중앙은행 전반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는 모습. 약 3년 2개월여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부동산, 건설 업종 등 국내 금리인하 이슈에 민감한 종목의 투자심리가 개선될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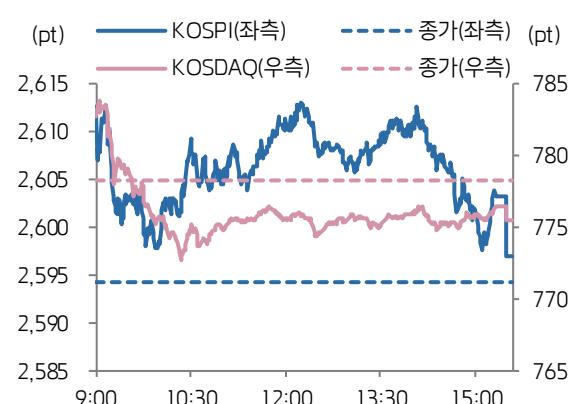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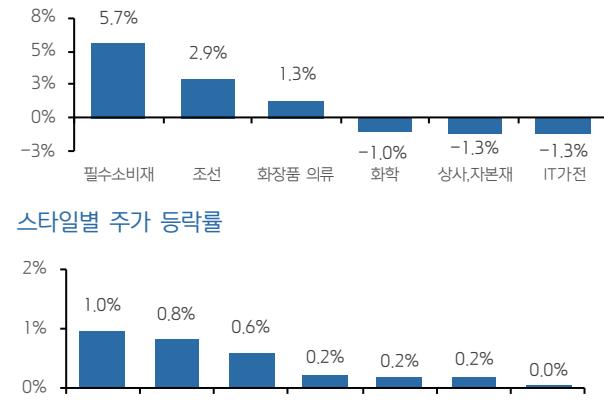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9.04	-0.22%	+19.41%	GM	47.69	-0.5%	+33.85%
마이크로소프트	415.84	-0.39%	+11.19%	일라이릴리	910.69	-0.98%	+56.99%
알파벳	162.08	+0.14%	+16.32%	월마트	79.61	-0.98%	+52.97%
메타	583.83	-1.13%	+65.44%	JP모건	212.84	-0.27%	+28.11%
아마존	186.65	+0.8%	+22.84%	엑손모빌	123.14	+0.86%	+26.33%
테슬라	238.77	-0.95%	-3.91%	세브론	150.62	+0.65%	+4.27%
엔비디아	134.81	+1.63%	+172.28%	제너럴일렉트릭	79.61	-1%	+53%
브로드컴	185.69	-0.14%	+68.14%	캐터필러	396.64	+0.11%	+35.81%
AMD	164.18	-4%	+11.38%	보잉	146.62	-1.84%	-43.75%
마이크론	105.69	+3.92%	+24.21%	넥스트에라	80.94	+0.4%	+3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99.16	+0.19%	-2.11%	USD/KRW	1,355.20	+0.68%	+5.22%	
코스피200	345.21	+0.28%	-3.57%	달러 지수	102.87	-0.06%	+1.51%	
코스닥	775.48	-0.35%	-10.51%	EUR/USD	1.09	-0.05%	-0.95%	
코스닥150	1,324.70	-0.46%	-4.93%	USD/CNH	7.08	-0.11%	-0.57%	
S&P500	5,780.05	-0.21%	+21.18%	USD/JPY	148.57	-0.5%	+5.34%	
NASDAQ	18,282.05	-0.05%	+21.7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2,454.12	-0.14%	+12.64%	국고채 3년	2.962	+2.7bp	-18.3bp	
VIX	20.93	+0.34%	+68.11%	국고채 10년	3.087	+0.7bp	-8.8bp	
러셀2000	2,188.42	-0.55%	+7.96%	미국 국채 2년	3.957	-6.4bp	-29.3bp	
필라. 반도체	5,293.94	-0.53%	+26.79%	미국 국채 10년	4.061	-1.2bp	+18.2bp	
다우 운송	15,898.81	-0.33%	+0%	미국 국채 30년	4.359	+1.8bp	+33.1bp	
상해종합	3,301.93	+1.32%	+10.99%	독일 국채 10년	2.256	-0.1bp	+23.2bp	
항셍 H	7,620.74	+3.46%	+32.1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611.41	+0.18%	+12.97%	WTI	75.85	+3.56%	+7.36%	
유럽, ETFs				브렌트유	79.40	+3.68%	+3.06%	
Eurostoxx50	4,970.34	-0.25%	+9.93%	금	2,639.30	+0.51%	+22.18%	
MSCI 전세계 지수	848.64	+0.46%	+16.73%	은	31.24	+1.86%	+29.7%	
MSCI DM 지수	3,716.17	+0.59%	+17.26%	구리	442.75	+0.64%	+13.8%	
MSCI EM 지수	1,148.27	-0.69%	+12.16%	BDI	1,799.00	-3.28%	-14.09%	
MSCI 한국 ETF	63.31	-0.39%	-3.39%	옥수수	418.50	-0.59%	-16.88%	
디지털화폐				밀	603.75	+0.79%	-9.75%	
비트코인	59,728.64	-1.1%	+40.51%	대두	1,014.75	-0.54%	-18.54%	
이더리움	2,366.52	+0.51%	+3.69%	커피	254.75	+1.88%	+35.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